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“편안한 귀성·성공적 올림픽 위한 교통관리” 강조 서울역철도교통관제센터 방문…사전 점검 철저·현장 안전 규정 준수 강조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(수), 서울역과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설 연휴 및 올림픽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과 성공적 올림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.

-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“올해 설 연휴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(2. 9. ~ 25.)과 겹쳐 하루 철도 이용객 수가 지난해 설 보다 약 10% 가량 증가한 5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.”라며,
 - “철저한 사전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의 안전 매뉴얼 등 제 규정 준수를 통해 각종 장애 발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 귀성객과 올림픽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목적지에 정시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- 또한, “철도역에 많은 사람이 집중되는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구난체계도 차질 없이 점검해 줄 것”을 주문하고,
 - “유사 시 고객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시 행동요령을 영상으로 방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.”고 말했다

- 이어 김 장관은 “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KTX가 정시에 안전하게 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열차 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폭설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대책 등도 면밀하게 준비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한편, 이날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맹성규 제2차관도 센트럴 시티터미널(호남선)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(경부선)을 각각 방문하여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량 점검과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※ 맹성규 제2차관은 이튿날(2.15.)인 설 첫날 평창 올림픽 개최지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요원을 격려하고 현지 교통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.

2018. 2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□ 장관님 방문일정

○ '18.2.14(수) : 서울역 → 철도교통 관제센터(구로)

*(목적) 특별수송대책 브리핑 청취, 관계자 격려

시간계획	소요	내 용	비 고
15:00~15:30	30'	▪ 서울역 점검 (철도공사 수송대책 보고, 직원 격려 등)	공개
15:30~16:20	50'	▪ 이동(서울역 → 철도교통 관제센터)	
16:20~16:50	30'	▪ 철도교통 관제센터 점검 (업무현황 보고, 홍보동영상 시청)	비공개
16:50~		▪ 철도교통 관제센터 출발	

□ 2차관님 방문일정

○ '18.2.14(수) : 경부고속터미널 → 청량리역

*(목적) 특별수송대책 브리핑 청취, 관계자 격려

시간계획	소요	내 용	비 고
14:30~15:00	30'	▪ 경부고속터미널 점검	
15:00~16:00	60'	▪ 이동(경부터미널 → 청량리역)	
16:00~17:05	65'	▪ 총리님 수행	

○ '18.2.15(목) : 평창올림픽 개최지(조직위원회)

*(목적) 현지 교통운영현황 점검 및 간담회

시간계획	소요	내 용	비 고
10:00~12:00	120'	▪ 조직위 사무소 및 현장점검	

□ 1차관님 방문일정

○ '18.2.14(수) : 센트럴시티터미널

*(목적) 특별수송대책 브리핑 청취, 관계자 격려

시간계획	소요	내 용	비 고
16:00~16:30	30'	▪ 센트럴시티 터미널 점검	